

머리를 삶으면 귀도 익는다

(소아 청소년 정신장애)

감기를 앓다가 그냥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지불식간에 간염(肝炎)을 앓다가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소아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정신적인 질병 상태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습상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어린이를 대개는 ‘나대는 아이’, ‘유별난 녀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소아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통계는 5-15%정도의 소아 청소년이 정신 질환을 일시적이건 장기간이건 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에 있어서의 정신장애는 그 자체로서 특별히 정상과 질적(質的)으로 다르다고 하기 보다는 증상의 양(量)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 어떤 역학 조사를 보면 30%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포 반응, 불안, 악몽, 분노 발작이나 손 빨기 등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소아들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증상 자체만으로 질병 상태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어린이의 발달 단계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특정 증상의 기능은 우선 그 어린이가 무엇인가 잘 못 되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이 참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도피와 안식을 찾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동시에 그는 그 증상을 가짐으로써 은연중 가족, 특히 부모나 학교 교사, 그리고 친지들에게서 관심을 끌게 하고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하는 부차적 효과를 가지는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성(性)의 차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 내의 분위기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장애는 사고(思考), 행동, 감정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느 면이 두드러지느냐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흔히 문제가 되는 아동기의 질환들은 정신 지체를 비롯하여 불안, 공포, 강박, 전환(히스테리) 등 성인의 노이로제에 해당하는 정서장애, 과잉 행동, 절도, 가출 등을 포함한 행동 장애, 특정 부분이나 전체적인 발달상의 이상을 보이는 발달 장애, 그리고 소아 정신병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임신, 출산의 분만 손상으로 발생하는 뇌 손상, 감염, 내분비계 이상 등의 원인으로 올 수 있는 뇌 기능 장애, 이차나 전학을 한 후 주위 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

는, 또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적응 장애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질환은 정신 지체나 뇌 기능의 손상 등 역전시킬 수 없는 몇 가지의 상태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간 내에 정신과적 접근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

때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여겨져서 부모들을 걱정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어린 아동의 증상을 판단할 때에는 늘 그 어린이가 처해 있는 발달 단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들의 정신과적인 증상의 판별에 꼭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첫째, 그 행동이 나이와 성(性)에 적합한 것인가,

둘째, 특정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셋째, 그 아동이 생애의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그 외에도 그 어린이가 살고 있는 가정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문명의 혜택 정도, 반복되는 증상 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매일 밤 악몽으로 두려움에 떨다가 엄마에 의해 병원에 온 네 살배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동시에 심한 격리 불안을 겪고 있었다. 그 아이는 초저녁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 할 뿐 아니라 새벽이 되면 거의 매일 예외 없이 악몽으로 깨어나 부들부들 떨며 울기 일쑤였다.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딱 잡아떼는 엄마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내성적인 성격의 그 아이로부터 원인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몇 년째 실직자 생활을 하는 아이의 아빠가 늘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이는 놀랍게도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애초부터 치료의 대상이 잘 못 되었다. “머리를 삶으면 귀도 따라 익는다”고, 처음부터 머리통을 붙잡아다 삶아야 하는 걸 ‘귀만 붙잡고’ 흔들려 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아이의 아빠는 끝까지 병원의 접수대 이상을 넘어오지 않았다.